

6/4/17

설교 제목: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7:1-28

- (히 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 (히 7:2)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 (히 7:3)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 (히 7:4)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 (히 7: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 (히 7: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절관주** 롬 4:13, 갈 3:16
- (히 7:7)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 (히 7:8)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절관주** 히 5:6
- (히 7:9)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 (히 7: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절관주** 창 35:11
- (히 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절관주** 갈 2:21, 히 9:6, 히 9:7, 히 10:1
- (히 7:12)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절관주** 행 6:13

- (히 7:13)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절관주** 민 16:40
- (히 7:14)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 (히 7:15)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절관주** 시 110:4
- (히 7:16)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절관주** 히 9:10
- (히 7:17)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 (히 7:18)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고
- (히 7:19)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 (히 7:20)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 (히 7:21)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 (히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 (히 7:23)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으로되
- (히 7: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절관주** 사 9:6, 사 9:7, 요 12:34
- (히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 (히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 (히 7:27)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러 이루셨음이라 **절관주** 레 16:15-17, 롬 6:10
- (히 7: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참 대제사장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간절히 충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일 뿐입니다.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고 영원하고, 완전함을 증거하면서 레위 지파 계열을 따른 제사장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참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1.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이 단지 제사장이었던 것에 반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히 7: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 7:2)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모세 율법에는 왕과 제사장 직분이 분리되어 있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분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결코 왕이 될 수 없고, 왕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예를 통해 이것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장 사무엘을 부르고 기다리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사무엘이 정한 기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사울 왕은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사울 왕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시며 그의 왕위를 폐하셨습니다.

반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의 이름 멜기세덱은 '멜기(멜렉)'라는 왕을 의미하는 단어와 '제덱'이라는 '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살렘은 '샬롬'의 변형으로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의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시면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 뽑히자 대통령의 권세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왕의 권세는 대통령의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자 대제사장이시기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내실 수 있었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이 단지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이었던 것에 반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히 7:3)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그로부터 십일조를 받습니다(창세기 14 장). 그리고는 또 성경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멜기세덱을 가르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을 이와 같이 시작도 끝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하여 영원 전 부터 존재하셨으며 또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존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도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오히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히 7:4)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히 7: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히 7: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히 7:7)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신약 시대에는 성도 간에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지위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중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열 두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성막을 섬기며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대신 다른 열 두 지파들이 내는 십일조로 생활하도록 했고 열 두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가 받은 십일조 중 십일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이 일반 레위인들보다 더 거룩하고 높은 지위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사장들 위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직위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직위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온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일 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백성들을 중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 십분의 일을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복을 빌어 주는 사람과 복 뱀을 받는 사람 둘 중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복 빌어 주는 사람이 복 뱀을 받는 사람보다 높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구속 사역의 시발점으로 언약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범죄했어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창 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 17: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17: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 17: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창 14 장에서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이 등장하여 아브라함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라 세움받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별다른 대제사장을 통해 중재를 받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자들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히 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 7:12)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히 7:13)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히 7:14)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히 7:15)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히 7:16)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히 7:17)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 7:18)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고

(히 7:19)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멜기세덱을 율법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서 그를 중재하게 하심으로써 율법과 율법의 제사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율법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모형과 그림자이니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반드시 대체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은 다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히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 들이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초보적인 단계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단계로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셔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시간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의 복음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반드시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와 열심으로 성화를 이루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